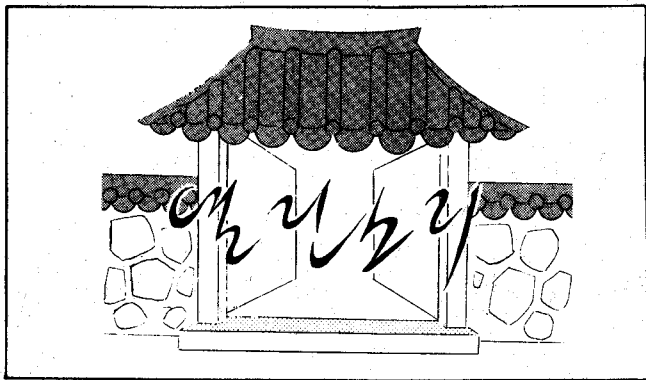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양보의식의 필요

사람이 먼저인가? 차가 먼저인가? 요즘은 부쩍 캠퍼스 내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차를 비켜 다녀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정문에서 올라와 헬덱고개와 가정대, 본관으로 가는 사거리에서 일정한 표지판이 없어 차끼리 얹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럴 때 학생들이 얹혀 있는 차 사이로 빠져나가야 한다. 또한 경종소리를 울리며 빠르게 올라가는 차가 있어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한 두번이 아니다. 이런 차의 대부분은 택시이다. 이 차를 타는 사람은 거의 학생들인데, 자신들이 아무리 수업시간이 늦었거나 헬덱고개를 올라가기가 싫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마을 버스나 생긴 후로는 정문 앞이 너무 혼잡해졌다. 어쩔 때는 길 가장자리에까지 발을 하고 정문에 올라 올 때도 있다. 차에 밀려서 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캠퍼스 안에서까지 차에 의해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는 게 너무나도 딱한 모습은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편의를 조금만 자제하면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캠퍼스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 희 진
(아동주거학 3)

대학생으로서의 도덕성 회복해야

요즘 학내에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났지만 우리 동아리는 그다지 도둑맞을 귀한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자물쇠를 만들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동아리 게시판에 누군가 주소록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주말에 그 주소록에 실린 사람들에게 이상한 전화가 왔다. 우리 동아리 사람의 이름을 사칭한 자가 돈을 뵈 달라는 것이었다. 그 자는 자신이 감기에 걸렸다면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다행히도 그 사실이 들어나서 피해를 본 친구는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 동아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학교 내에서마저 이런 불신 풍조가 쌓여 가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 이런 사건 말고도 책이나 가방, 심지어는 컴퓨터까지도 학내에서 도난 당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물함에도 꼭 자물쇠를 채워야 안심이 되는 것도 갈수록 작은 도둑들이 늘어가는 때문인 것이다.

적어도 대학생정도 되었다면 어느 정도 내 욕구를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캠퍼스 내에서는 더욱 말이다. 나의 숨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이 아끼는 것을 빼앗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 라 해도 엄연한 범죄이다.

모든 경희 학생들이 내 물건을 망치고 서랍 안에 넣어 두어 도둑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사물함에도 귀찮게 굳이 열쇠를 달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박 지 윤
(사회학 2)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작은 정성이 경희의 밝은 미래를 여망합니다. 21세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 경희의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정수순입니다.('97.11.8~11.14)

△한의학과학 · 기술연구원 산학협동기금 (개풍양행 대표 : 박신희)	3천만원	▶경희사랑저금통	
△여성구(경희고등학교 교장, 법률학과 54, 2차분)	5백만원	△조용호(의대 의학과교수, 학생처장, 12 차분)	9만4천2백80원
△이경태(약학과 교수)	2백만원	△최풍근(경영대학원 교무과장)	7만2천50원
△정진태(약학과 교수)	2백만원	△이영하(한의학 과학 · 기술연구원)	4만7천8백20원
△최우석(의예과 교수)	2백만원	△안주아(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5만2천3백10원
△고영관(의예과 교수)	2백만원		
△신종수(중앙일보 편집부 부국장, 행정 62)			
	29인지 TV1대 기증		

독자사진



우월한 사랑

김 동 현
(생물 2)

열린소리 참여안내

열린소리는 경희 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 · 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시, 만화, 사진, 수필 등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대학주보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안 · 취재제보가 있으시면 학내 비치된 열린소리함이나 다음 PC 통신 I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 khunews
◇보낼곳 : 서울 · 수원 본사 편집실 천리안(ID) : khunews

독자수필

마음으로 부르는 동요

황 은 정
(사회과학부 1)

'엄마가 섬그늘에 굴파러 가면...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노래에 팔베고 스프르르 잠이 듭니다' 어느새 내 귓전에 맴도는 노래가 있다. '섬집 아기' 매일 들어서 익숙한 곡도 아닌데 말이다. 다만 초등학교 시절 음악시간에 목청껏 큰 소리로 부른 기억 밖에 없다. 그때에는 노래에 감정을 불어넣지도 않은채 무조건 크게 불렀다.

옛 친구만큼이나 크게 불렀다. 서로서로 누가 크게 부르나 내기라도 한듯 말이다. 무조건 크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귓전에는 평안한듯 하면서도 애절한 노래로 울리고 있었다. 난 한번도 그렇게 불렀던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노래는 내 의식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오랜 과거부터 있었던 것 처럼.

왜 일까? 낯설지 않은 편안함과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만 그러한 평온함과 따스함이 그림다.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친구들과함께 있어도 언제나 무언가를 찾고 있다. '섬집 아기'의 아기가 평온하게 잠을 청하는 반면 난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과거에 얽매어 집착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로부터 내 자신의 평온함과 따스함을 찾으려 했을 뿐이다. 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지쳐 긍정적인 모습을 찾으려 한 것이다.

처음엔 주위 사람들을 닮았다. 왜 나에게 평온함과 따스함을 주지 않았는지를... 그것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달은지 얼마 되지 않는다. 다시 '섬집 아기'의 노래가 내 귓전에 울렸을 때 말이다.

아기는 바다소리에 만족하고 잠이 들었다. 시끄럽기도한 바닷소리를 엄마의 자장가만큼 만족하며 잠이 든 것이다.

이렇듯 내 자신이 나 자신속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것이다. 이제 내 자신에 만족할 것이다. 내 자신에 감사하며 사랑할 것이다. 타인에게 평안함과 따스함을 기대하기 보다는 내 자신안에서 찾아 만족하며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바란다.

朔風

삼 · 국 · 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번은 읽었거나 다 읽지는 못해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책을 꼽으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답하는 대부분 이의 공통된 의견이 아마도 '삼국지'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만큼 '삼국지'에 대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그만큼 삼국지의 모든 장면들과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며, 그 속에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삼국지를 접하기도 한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나 삶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는 역사를 통해 단서를 미래를 예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훌륭한 지침역할을 하는 데에 '삼국지'의 역할은 조금도 손색이 없다. 특히 삼국지 초반부에 나오는 도원

결의(桃園結義) 대목은 도가 무너지고 의리가 땅에 떨어지는 오늘의 정치현실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도원결의의 주인공인 유비, 관우, 장비는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 세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궁적으로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적으로는 형제의 도를 결의한 사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다.

세사람의 신뢰에 대해서도 '은혜는 형제와 같다.', '은혜는 더욱이 부자간과 같다.', '의리(義理)에 있어서는 임금과 신하였다.'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의 관계속에는 공과 사가 뚜렷하고 분명한 질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처음 세사람이 의형제를 맺으면서, 힘을 합쳐 재난에 대처하고, 위로는 나라에 보은하며, 아래로는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하고자 맹세한 이야기, 또 동년, 동월, 동일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동년, 동월, 동일에 죽고자 맹세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만형(유비)이

아우들(관우, 장비)의 복수를 하기 위해 오나라를 토벌하는 이야기까지 세 사람의 충의(忠義)에 대한 고정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세사람은 도원결의로 형성된 의형제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력이나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도 아쉬워하지 않았으며, 그 결의는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다.

바로 이런 까닭에, 도원결의에 관한 이야기가 비록 허구라 할지라도, 작품상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행해졌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합당으로 세불리기에 급급한 대선주자들의 마음이 도원결의를 맺는 형제의 충의가 분명 아닐진대 어찌 도가 아닌 길을 강요하는 작금의 현실이 가슴아프게 와 닿지 않았는가?

지금 이 순간 '삼국지'를 앞에 두고 '도원결의의 진정한 도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變變)

한빛은 조국을 위하여
한국의 힘, SK

SK

유공이 SK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경제의 원동력 유공이 세계적인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이 되기 위해 SK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가는 힘, 에너지·화학에 있습니다.

힘있는 나라를 만드는 에너지·화학 - SK가 책임지겠습니다

★기획제작: SK홍보실 담당 안병천 / 제1기획: CD오세진, GD최진, 홍요한 · CW이상은 · AE문재민, 이승욱

한국의 힘 -
SK 주식회사
http://www.skcorp.com

舊사명	新사명
유공해운	SK해운
유공상사	SK에너지판매
유공가스	SK가스
유공목시케미칼	SK목시케미칼
중앙생명	SK생명